

〈보 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드러냅니다. 크게 어렵거나 낯선 내용은 없어요. 주인공인 최치원은 문제 해결을 잘하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도 받고, 신이한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과 관련된 사건이 등장한다면 거기에서 주목해서 읽어야겠어요.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사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

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파경노의 신이한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제시됩니다. 일단 나업의 딸이 재예가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거울 수리를 하는 사람인 척 하면서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고 반한 파경노는 거울을 일부러 깎니다. 일부러 깨고 나서는 자기를 집으로 들여 노비로 삼아달라고 하죠. 아주 치밀합니다. 아마 나업의 딸을 가까이 보기 위해 꾀를 쓴 것이겠죠?

그렇게 노비가 된 파경노는 말을 키우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천상의 선관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초월적 존재의 도움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말들이 파경노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늘어서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승상 부인이 눈치를 찻니다. 파경노가 보통 애가 아니니까 마부 일이나 천한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해요. 파경노의 신이한 능력을 알아본 거죠.

그렇게 화초를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파경노의 신이한 능력이 간단히 드러납니다. 화초가 시들지 않고, 봉황이 날아들고 있어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승상 부인의 말대로 파경노가 비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읽었으면 〈보기〉에서 말한 최치원이 파경노라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

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이제는 소저를 꼬시는(?) 파경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 파경노는 나업의 딸에게 반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소저가 파경노 자신을 보기가 부끄럽다고 하니 어머니를 보러 가는 척 하면서 숨어있다 소저가 오길 기다립니다. 그렇게 소저가 오니까 시로 화답을 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파경노를 부끄러워하던 소저는 또 부끄러워서 돌아갑니다. 나를 치밀하네요.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 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국가적 과업이 제시됩니다. 중략 이전에서 이미 파경노가 비범하다는 건 전부 확인했어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업이 중국 황제가 내린 국가적 과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석함에 있는 걸 열어보지도 않고 알아내 시를 쓰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나업도 그걸 아니까 통곡을 하는 듯 합니다.

이때 파경노가 나서네요. 소저에게 꽃을 꺾어주며 거울에 비친 이가 근심을 없애줄 거라고 말합니다. 맥락상 소저 또한 나업의 과제 때문에 슬피 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경노가 해결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여기서 ‘거울

에 비친 이’는 자신입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파경노잖아요. 결국엔 자기가 해결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비범한 인물이니 해결할 수 있겠죠? 파경노의 당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뱀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그렇게 파경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소저가 파경노한테 과업 해결을 맡겨보라고 나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업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다, 파경노가 자신 있어 했다, 혹시 모르니 한번 맡겨 보라는 소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웬걸 파경노가 거절을 하네요. 그런데 공주의 반응도 무섭습니다. 원래 나업은 포상으로 파경노를 꼬셨어요. 그런데 소저는 그러지 말고 그를 겁박하라고 합니다. 파경노가 거짓으로 저러고 있으니 시를 지으라고 협박하라고 해요. 무섭네요. 그리고 파경노를 다시 부르는 것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2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시간의 역전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니다. 전부 나름대로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어요.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서술자 개입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그려진 않습니다. 애초에 전모를 모르는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 걸요.

③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그 어떤 인물도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지 않았습니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네, 나업과 소저의 대화가 핵심이죠. 나업이 받은 과업을 파경노에게 맡기라는 방안과 파경노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 협박을 하라는 일종의 해결 방안이 모두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꿈과 현실의 교차 자체가 없어요. 사건 암시도 딱히 없고요.

**30.**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 네, 거울을 받을 때 파경노(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소저는 벽에 걸린 거울에 그림자가 보여 놀랐습니니다. 그래서 보니까 파경노가 있었죠. 파경노 자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②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 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 거울을 깨고 노비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니다. 그런데 뒷 부분이 틀렸네요. 승상 부인이 파경노를 인정하는 건, 마부 일을 맡겼을 때입니다. 그때 승상 부인이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맡은 일을 화초 관리로 바꾸어주죠. 사건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니다. 작품에 드러난 플롯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선지입니다.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소저는 동산의 꽃을 보고싶었지만 파경노가 부끄러워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파경노가 소저에게 꽃을 줄 때 근심을 해결해주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죠.